

Print ISSN: 1738-3110 / Online ISSN 2093-7717
<http://dx.doi.org/10.15722/jds.13.11.201511.69>

Self-Efficacy and Self-Control Effects on Purchasing Intention of Annuity Savings Plans: Considering Financial Literacy

금융 유통산업에서의 자기효능감과 자기통제가 연금저축 가입의도와 가입행동에 미치는 영향: 금융이해력에 따른 차이분석

Yun-Bok Lee(이윤복), Phil-Soo Lee(이필수), Jae-Kwang Hwang(황재광)

Received: October 20, 2015. Revised: October 27, 2015. Accepted: November 15, 2015.

Abstract

Purpose – Economic status at an early stage of life after one's retirement is often determined by the long-term sacrifice of one's earlier consumption tendencies. In general, the first and foremost way to secure income after retirement is through annuity savings. People sign up for personal annuity savings in order to guarantee a stable economic life upon retirement, and such actions may be heavily influenced by self-efficacy. Confidence in current economic activity is a source of rational decision-making. Inability to achieve self-control can lead to reckless spending and the eventual hindering of proper investment for the future. This paper examines how self-efficacy and self-control affect the intention and action of enrolling in an annuity savings plan in relation to one's level of financial literacy.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To analyze the proposed model, this study investigates financial consumers over the age of 20.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511 respondents and analyzed with SPSS 21.0 and AMOS 21.0. First, for the one-dimensional test and to measure the convergent validity of each structure, we use the scale purification process. The results of the test and the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ensure the focus of the validity of the single dimension for each structure. In addition, the validity of the measurement was guaranteed from the results of correlation analysis.

Results – First, self-efficacy and self-control have positive effects on the purchasing intention of the personal annuity savings plan. Second, purchasing intention positively affects purchasing

behavior. Lastly, self-control has a positive effect on purchasing intention among the low financial literacy group, whereas self-efficacy does not have this effect in the high financial literacy one.

Conclusions – The time of product benefit is different with age. The younger group would be granted the savings after several decades once they enroll, whereas the older group would wait for a relatively shorter period of time. Therefore, further research should be conducted in order to verify such a difference. However, this study has value through its confirmation that the roles of self-efficacy and self-control play a part in leading to the enrollment in annuity savings plans and by verifying different effects based on levels of financial literacy.

Such results suggest a number of implications in a real life setting. First, banks need to put greater emphasis on the stability of annuity savings in general. Second, customers with relatively low levels of financial literacy are able to control their finances through annuity savings, but find self-efficacy difficult due to a lack of financial understanding. Therefore, such customers should be approached from an invest-effectiveness comparison method. Third, customers with high financial literacy tend to put more value in rational economic decision-making and behavior than in self-efficacy. Therefore, such customers should be approached by promoting the reliability of annuity savings and the excellence of the specific bank's annuity savings plan in comparison to those of other financial institutions.

Keywords: Financial Literacy, Self-Efficacy, Self-Control, Saving Intention, Saving Behavior.

JEL Classifications: I25, M31, P43.

* First Author, Vice CEO, WooRi Service Networks Co. Ltd., Korea, E-mail: lyb1801@naver.com.

** Second Author, Research Fellow Union Research Co. Ltd., Korea, E-mail: lps33@korea.com.

*** Corresponding Author, CEO, F.S.Korea Ind. Inc., Korea, E-mail: jkhwang@fskorea.com.

1. 서론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2013년 12.2%에서 2020년 15.7%, 2026년에는 20.8%로 '초 고령화 사회(20% 이상)'로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인구고령화 비율은 2040년에는 32.3%로 전 세계에서 일본(34.5%) 다음으로 높은 국가가 될 전망이다. 2040년 주요 선진국의 고령화 비율은 2010년에 대비 1.4~1.6배 증가하지만 한국은 2.9배 높아질 것으로 나타났다(Statistics Korea, 2013).

인구고령화는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 저축률 하락에 따른 자본 축적 속도의 둔화, 자산 수익률의 하락, 보건복지 재정지출의 급증을 초래할 것이다(Hong, & Jun, 2013).

최근 우리나라는 저 출산과 인한 인구고령화와 높은 기대수명으로 노후 생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Kim, 2013). 최근 은퇴 시기가 빨라짐으로 인해 노후 생활이 경제적으로 불안해지고 있다. 이러한 불안한 노후 생활 보다 조금 더 안정된 노후 생활을 위해 연금 보험이나 연금 저축에 가입하여야 하는 실정이나 은퇴준비를 실행에 옮기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은퇴준비자금을 위해 은퇴 생활비를 계산해 본 가계는 전체 가계의 25% 뿐이며, 은퇴를 위해 저축이나 투자를 하고 있는 가계는 전체 가계에 50%에 불과하였다(Choe, Joo, Kim, & Kim, 2009).

가계의 은퇴 이후 경제적 수준은 은퇴 전 직장생활 초기부터 장기적인 소비의 희생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은퇴이후의 소득보장을 위한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연금 소득의 확보가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간주되고 있다(Kim, 2009).

자기효능감은 특정 행동을 유도하는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자기평가이며(Tierney, & Farmer, 2002), 특정 행동을 예측하기 위해 가장 유용한 요인으로 설명된다(Bandura, 1986). 은퇴 후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 현재의 희생이 요구되는 연금저축 가입은 자기효능감에 따라 가입여부가 결정된다.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스스로를 모니터링하고, 많은 노력을 투자한다(Sniehotta, Scholz, & Schwarzer, 2005). 연금저축 가입자는 은퇴 후의 안정된 생활의 보장을 기대하면서 현재 경제 활동에 더 충실할 수 있고, 이러한 보장은 생활의 자신감으로 나타날 것이다.

현재의 경제 활동에 대한 자신감은 자신의 바람직한 의사결정을 위한 원천이다. 자기 통제력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충동제어를 다른 사람보다 잘할 수 있다(Rothbart, Ellis, Rueda, & Posner, 2003). 자기 자신이 자기통제를 하지 못하면, 무분별한 경제 활동을 하게 되며, 결국 이러한 활동은 미래에 대한 투자를 방해하게 된다. 즉각적인 결과를 지연하고 궁극적으로 미래에 더 가치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자기통제를 고려하여야한다. 자기통제에 대한 이러한 관점은 만족 지연 개념과 유사하고 즉각적인 자극 또는 반응 제어의 중요성을 강조한다(Mischel, 1974). 또한, 자기통제는 저축과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Laibson, Repetto, Tobacman, Hall, Gale, & Akerlof, 1998; Shefrin, & Thaler, 2004).

고객은 자기효능감이 높고 자기통제가 가능하더라도 더욱 복잡해지는 금융에 대한 이해력이 연금저축 가입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고객이 현재의 희생 강도와 미래의 보장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은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준다(Hilgert, Hogarth, & Beverly, 2003).

투자의 기본 지식을 통해 금융자산에 대한 이해와 확신이 있을 때, 금융 위험을 감수할 용의가 있기 때문에 재무지식이 많은 가계일수록 수익이 예상되는 위험자산에 투자하며, 효율적으로 자산

을 관리한다(Calvet, Campbell, & Sodini, 2007). 재무지식과 재무 행동 간에는 상관관계가 있어서(Hilgert, Hogarth, & Beverly, 2003), 재무지식이 높은 사람은 투자자산 포트폴리오 구성을 잘할 수 있다(Kimball, & Shumway, 2006). Campbell(2006)은 젊고 학식이 많은 부유한 소비자가 이자율이 하락할 때에는 모기지론의 구조를 변경하여 이자지출을 줄이는 것을 알아냈다. 또한, 낮은 금융 이해력을 가진 사람은, 높은 금융이해력을 가진 사람과 달리 은퇴에 대한 계획을 덜하게 된다(Lusardi, & Mitchell, 2007).

기존의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과 자기통제가 각각 연금저축의 가입 의도와 가입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으며(Dietz, Carrozza, & Ritchey, 2003; Laibson, Repetto, Tobacman, Hall, Gale, & Akerlof, 1998), 금융이해력과 투자 자산의 형태 또는 부동산의 운영 형태에 대하여 연구하였다(Bell, & Lerman, 2005).

본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과 자기통제가 연금저축 가입의도와 연금저축 가입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고, 자기효능감 및 자기통제와 연금저축 가입의도 간에 금융이해력이 높은 그룹과 낮은 그룹의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개인(Tierney, & Farmer, 2004) 뿐만 아니라, 조직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으며(Shin, & Zhou, 2007), 나아가 교육, 제조, 운영, 금융, 보험 서비스, 그리고 연구개발 등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Beghetto, 2006; Carmeli, & Schaubroeck, 2007; Choi, 2004; Gong, Huang, & Farh, 2009; Jausi, Randel, & Dionne, 2007; Shin, & Zhou, 2007; Tierney, & Farmer, 2002; 2004).

자기효능감은 수행할 행동의 결정에 직면해 있을 때, 끊임없는 노력과 힘을 제공해줄 수 있는 자기평가의 한 가지 형태로 행동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평가의 한 형태이며(Hsu, Ju, Yen, & Chang, 2007), 결과적으로 특정 행동을 유도하는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자기평가로 정의된다(Tierney, & Farmer, 2002). 자기 효능감은 활성 특화 전략으로 프로세스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하다.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희망을 가짐과 동시에 스스로를 모니터링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한다(Sniehotta, Scholz, & Schwarzer, 2005). 자기 효능감은 계획된 행동을 촉진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Bandura, 1997). 또한 개인이 개인 상황과 자원의 제약조건을 평가하고, 평가된 상황과 조건이 개인의 판단에 관여한다(Gist, & Mitchell, 1992).

본 연구에서는 금융서비스 중 하나인 연금저축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가입의도와 가입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이며, 자기효능감은 자신이 문제에 직면했을 때 해결 할 수 있는 의지로 정의한다.

2.2. 자기통제

자아인식과 자기통제는 개념적으로 서로 다른 개념이다(Baumeister et al., 1994; Kuhl, & Fuhrmann, 1998). 자기통제는 계획된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일부 연구에서는 자동적으로 계획된 행동에 단서를 제공한다고 하였다(Gollwitzer, 1999).

자기통제는 자신의 바람직한 행동을 자극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억제하기 위해 발휘되는 노력으로, 자기통제를 함으로써

자율적인 규제를 위한 전제조건이 된다(Baumeister, Heatherton, & Tice, 1994; Carver, & Scheier, 1998; Muraven, & Baumeister, 2000; Tangney, Baumeister, & Boone, 2004).

자기통제는 어떠한 행동을 수행하나 변경하기 위해 수반되는 노력을 의미하고(Baumeister, Heatherton, & Tice, 1994; Carver, & Scheier, 1998) 자기통제 상태는 시간에 따라 변한다. 풍부한 경험을 통해 자기 통제력을 발휘하는 사람은 자기 통제 이전의 분위기(Fishbach, & Labroo, 2007; Tice, Baumeister, Shmueli, & Muraven, 2007), 행동에 대한 기억(Hofmann, Gschwendner, Friese, Wiers, & Schmitt, 2008; Schmeichel, 2007), 동기부여(Muraven, 2008)와 같은 상황에 민감하다(Baumeister et al., 1998; Muraven, & Baumeister, 2000). 높은 자기통제를 가진 사람은 자신의 충동제어를 다른 사람보다 잘한다(Gottfredson, & Hirschi, 1990; W. Mischel, Cantor, & Feldman, 1996; Rothbart, Ellis, Rueda, & Posner, 2003). 또한, 낮은 자기통제를 가진 사람은 장기적인 결과에 대해 비용을 예상하고 있으므로 잘못된 행동에 대한 유혹에 굴복할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높은 자기통제를 가진 사람은 잘못된 행동에 비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인식하기 때문에 유혹에 저항할 수 있다(Gottfredson, & Hirschi's, 1990).

충동제어모델(Ainslie, 1975)에서는 즉각적인 결과를 지연하고 궁극적으로 더 가치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자기통제를 고려한다. 자기통제에 대한 이러한 관점은 만족 지연 개념과 비슷하고 즉각적인 자극 또는 반응 제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Mischel, 1974).

따라서 자기통제모델에서 자기통제는 장기적인 이익에 단기적인 희생 의사 결정에 대한 즉각적인 결과보다 지연된 결과를 선호하는 결정을 나타낸다(Frederick, Loewenstein, & O'Donoghue, 2002). 따라서 연금저축과 같은 금융상품에서는 단기 보다는 장기적으로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자기통제가 필요하다(Gottfredson, & Hirschi, 1990; Logue, 1988; Rachlin, 2000).

2.3. 금융이해력

금융이해력(financial literacy)은 일상적인 금융거래를 이해하고 금융지식을 활용하는 능력으로, 소비자의 상품에 대한 지식은 구매 결정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영향을 미치는 특성으로 인식되어 왔다(Bettman, & Park, 1980). 상품에 대한 지식의 차이만큼 인식 수준도 다르다(Laroche, Bergeron, & Goutaland, 2003; Baker, Hunt, & Scribner, 2002; Blair, & Innis, 1996). 높은 수준의 상품 지식을 가진 소비자는 여러 지식을 분석하여 훌륭한 의사결정 기준을 개발한다(Marks, & Olson, 1981). 상품에 대한 지식이 높은 사람들은 정보를 처리할 때, 상품 정보의 이해하는데 적은 노력으로, 관련 지식 구조가 자동으로 활성화되어 더 많은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Alba, & Hutchinson, 1987).

많은 가계는 매우 단순한 계산을 할 정도의 기본적인 금융이해력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절약행동이 계산에 의해 이루어진다(Bernheim, 1998). Bernheim, Garrett, & Maki (2001)와 Bernheim, & Garrett(2003)는 학교나 직장에서 금융교육을 접한 사람이 더 많은 저축을 하는 것을 밝혔다.

Lusardi, & Mitchell(2006, 2007)은 낮은 금융이해력을 가진 사람은 은퇴에 대한 계획을 덜하고 그 결과로 적은 부를 축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Hilgert, Hogarth, & Beverly, 2003). Stango, & Zinman(2007)의 연구에서는 자금의 흐름에서 금리를 산출할 수 없는 사람이 더 많은 차입과 낮은 자산을 축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에 관한 실패는 연령에 상관없이 모든 금융이해력이 낮은 사람에게 나타난다(Agarwal, Driscoll, Gabaix, & Laibson, 2007).

소비자의 금융이해력 향상은 금융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과 혁신을 유도하여 금융산업의 질적 성장에 기여하는 한편, 중산층의 원만한 노후 설계를 도와 장기적으로 경제의 성장 잠재력 확충에 기여한다(Chun,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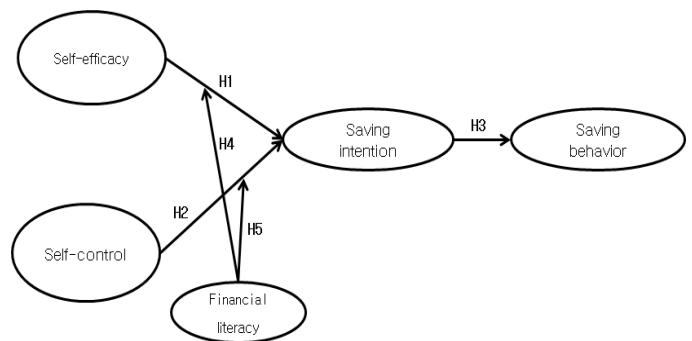
2.4. 금융 가입의도와 가입행동

소비자의 행동의도는 만족의 결과로서 자신의 신념과 태도가 가입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개인의 주관적인 상태로서(Boulding, Kalra, Staelin, & Zelthaml, 1993), 연금저축의 가입의도는 좀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현재의 희생 의도로 나타난다. 행동의도는 기업으로 부터 제공되는 서비스를 구매 또는 이용하려는 개인의 판단으로, 개인의 현재 상황 및 주변 환경에 의해 고려될 수 있다(Hellier, Geursen, Carr, & Rickard, 2003).

Assael(1998)은 행동의도를 태도와 가입행동 간의 중간 변수로써, 마케팅과 경제학자들이 미래의 행동을 예측하기 위한 도구라고 하였다. 또한 Engel, & Blackwell(1982)은 행동의도를 신념과 태도가 행위로 옮겨지기 위한 단계로 개인의 계획된 미래의 행동으로 정의하였으며, Davis(1989)는 행동의도를 행동의 전 단계라고 하였다.

3. 연구모형과 가설설정

본 연구는 자기효능감과 자기통제가 연금저축 가입의도와 가입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금융이해력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선행연구를 근거로 하여 <Figure 1>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가설을 구성하였다.



<Figure 1> Proposed Model

3.1. 자기효능감과 가입의도 간의 관계

일반적으로 지각된 자기효능감은 개인의 동기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Bandura, 1982, 1986; Igbaria, & Iivari, 1995), 특정 업무수행 하는데 필요한 인지적 자원이나 동기 유발 등의 능력을 부여하는 개인적인 판단이다(Gist, & Mitchell, 1992).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자기효능감은 동기유발을 통해 자원을 축적하여 연금저축에 가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기효능감은 적극적인 목표를 설정하거나 달성과 같은 성과를 내는데 필요한 행동과 관련이 높으며, 목표 달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Gist, 1987). Ajzen, & Madden(1986)의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이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따라서 자기효능감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길어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할 수 있으므로 미래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 연금저축에 가입할 의도가 높을 수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과 가입의도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1> 자기효능감은 연금저축 가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 자기통제와 가입의도 간의 관계

Ajzen, & Madden(1986)은 자기통제가 행동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행동의도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Ajzen, & Madden(1986)의 연구에서는 자기통제와 자기효능감이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은퇴 후의 안정된 생활을 위한 자기통제가 연금저축 가입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de Ridder, Lensvelt-Mulders, Finkenauer, Stok, & Baumeister(2012)는 자기통제는 바람직하지 않는 행동을 자제시키고 자기통제와 행동사이에는 큰 영향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무분별한 소비를 하지 않고 은퇴 후를 위해 투자할 수 있는 자기통제는 연금저축에 가입할 의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자기통제와 가입의도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2> 자기통제는 연금저축 가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3. 가입의도와 가입행동 간의 관계

행동의도가 있다고 해서 모두 행동으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행동의도는 행동을 예측하는 가장 큰 영향변수로 작용하며(Ajzen 1985, 1991; Lam, & Hsu 2004), 행동의도는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Barr, & Gilg, 2007).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연금저축 가입의도가 있다고 해서 연금저축에 가입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연금저축 가입의도는 연금저축 가입을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영향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연금저축 가입의도와 가입행동과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되었다.

<H3> 연금저축 가입의도는 가입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4. 금융이해력에 따른 차이

Kwak, & Ji(2008)의 인터넷 구매결정과정에서 연구에서 개인특성 및 쇼핑물특성과 구매의도 간에 관여도가 조절역할을 한다고 하였으며, Yoon, & Cheon(2012)의 정보 제공자의 전문성이 구전 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수신자의 제품지식이 조절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자기효능감 및 자기통제와 가입의도 간에 금융지식을 기반으로 한 금융이해력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금융이해력이 높은 그룹과 낮은 그룹의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H4> 자기효능감과 연금저축 가입의도 간에 금융이해력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H5> 자기통제와 연금저축 가입의도 간에 금융이해력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4. 연구방법

4.1. 표본의 설계

본 연구는 자기효능감과 자기통제가 연금저축 가입의도와 가입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금융이해력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각 변수에 대하여 문항을 작성하고 설문조사를 통하여 자료가 수집되었다. 설문조사는 설문의 공정성 및 편리성을 고려하여 전문 리서치 기관의 도움을 받아, 수도권에 거주하는 19세에서 60세 까지를 일반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설문조사 기간은 2015년 5월 6일부터 5월 16일까지 약 10일 동안 실시되었다. 설문은 520개가 수거되었으며, 이 중 응답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된 9부를 제외한 총 511부가 분석에 이용되었다.

4.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본 연구에서 이용된 모든 측정항목들은 “1=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7=매우 그렇다”의 7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자기효능감은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의지로 정의되었으며, Chen, Gully, & Eden(2001)의 자기효능감에 대한 설문을 번역 후, 본 연구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되었다. 또한 자기효능감의 신뢰도 값은 0.936으로 나타났다. 자기통제는 목표달성을 위해 즉각적인 욕구를 자제력으로 극복하는 것으로 정의되었으며, Tangney, Baumeister, & Boone(2004)의 자기통제에 대한 설문을 번역 후, 측정하였다. 또한 자기통제의 신뢰도 값은 0.867로 나타났다. 연금저축 가입의도는 은퇴 준비를 위한 연금저축 가입의도로 정의되었으며, Engel, & Roger(1995)의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을 번역 후, 본 연구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되었다. 또한 가입의도의 신뢰도 값은 0.940으로 나타났다. 연금저축 가입행동은 실제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있는 상황으로 정의되었으며, 본 연구의 상황에 맞게 개발하여 사용되었다. 또한 가입행동의 신뢰도 값은 0.861로 나타났다. 또한, 금융이해력은 금융을 얼마만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되었으며, Choi(2010)의 대학생 금융이해력 지수(FQ) 측정에서 사용된 34문항을 사용하였다.

5. 실증분석

5.1. 표본의 일반적 특징

본 연구에 이용된 511명의 응답자에 대한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먼저, 성별은 남자가 50.1%로 여자(49.9%)에 비하여 약간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혼 유무는 기혼(67.3%)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은 서비스 및 판매직 종사자가 51.9%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전문직 종사자(22.3%), 사무직 종사자(18.6%), 그리고 기술직 종사자(7.2%)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50세 이상이 25.6%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대

(25.4%), 30대(25.0%), 그리고 40대(23.9%)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대졸이 42.1%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졸(30.5%), 중졸 이하(16.6%), 전문대졸(10.8%)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택 보유 유무는 미보유가 56.9%로 보유(43.1%)에 비하여 약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Sample Profile(N=511)

		N	%			N	%
Gender	Male	256	50.1	Marital status	Single	167	32.7
	Female	255	49.9		Married	344	67.3
Job	Specialized	114	22.3	Age	20 - 29	130	25.4
	Officer	95	18.6		30 - 39	128	25.0
	Sales and service	265	51.9		40 - 49	122	23.9
	Technical post	37	7.2		Over 50	131	25.6
Educational level	Middle school	85	16.6	Possession of house	Home owners	220	43.1
	High school	156	30.5				
	College	55	10.8		Non-home owners	291	56.9
	University	215	42.1				

5.2. 측정모형 분석

척도의 집중타당성(convergent validity)과 판별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을 검증하기 위하여 본 모델에 포함된 모든 연구 단위 전체에 대한 측정모형분석(measurement model analysis)이 실시되었다.

분석 결과, <Table 2>에서와 같이, 적합도 지수는 $\chi^2=449.301(df=146, \chi^2/df=3.077, p\text{-value}=0.000)$, CFI=0.932, NFI=0.903, GFI=0.919, RMR=0.036, RMSEA=0.064로 구조모형 분석 이용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Measurement Model by Confirmatory Factor Analysisa

Items	Standardized factor loadings	CCRB	AVEc
Self-efficacy		0.936	0.678
I am able to achieve most of the goals I have set up.	0.663		
I'll get over it when faced with a difficult task.	0.752		
I can usually get the results that I think is important.	0.769		
I believe that if you do anything to try to succeed.	0.706		
I can even overcome difficult.	0.777		
I can do a variety of tasks effectively well.	0.659		
I can do better work than most of the others.	-		
I can do well whatever it takes hard work.	0.761		
Self-control		0.867	0.521
I am tempted goes well.	-		
You easily fix me a bad habit.	-		

Items	Standardized factor loadings	CCRB	AVEc
I am diligent.	-		
I say the right thing.	0.599		
I do not harmful things to me.	-		
I reject bad thing to me.	0.625		
I have enough self-control.	0.631		
People say that I am a thorough person in principle.	0.611		
I would even be enjoyable and fun things I do.	0.709		
I am always well focused.	0.676		
I can work effectively in order to achieve long-term goals.	-		
I know what the line is wrong, just I can not stop.	-		
I act with all the alternatives.	-		
Saving intention		0.940	0.839
It can forward the idea to join a savings for retirement.	0.852		
It seems to be joining future savings for retirement.	0.927		
Future plans to more actively utilize the savings for retirement.	0.819		
Also it deserves to be recommended to those around saving for retirement.	-		
Saving behavior		0.861	0.678
I am subscribed to the national pension significant savings for retirement.	0.866		

There are additional savings for the tax benefits of retirement for.	0.894		
I will add in addition to the current retirement savings retirement savings.	0.637		

^a $\chi^2=449.301(df=146, \chi^2/df=3.077, p\text{-value} =0.000), CFI=0.932, NFI=0.903, GFI=0.919, RMR=0.036, RMSEA=0.064$

^b Composite construct reliability

^c Average variance extracted

* Items were deleted during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5.3. 상관관계 분석

타당성과 신뢰도 분석 결과, 단일차원성이 입증된 각 연구단위 별 척도에 대하여 서로의 관계가 어떤 방향이며,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를 갖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Table 3>에서와 같이, 상관관계 분석이 실시되었다. 분석 결과 연구모형과 연구가설에서 제시한 연구 단위들 간의 관계 방향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Construct Inter correlations, Mean and Standard Deviation

	Self-efficacy	Self-control	Saving intention	Saving behavior
Self-efficacy	1			
Self-control	0.241**	1		
Saving intention	0.180**	0.171**	1	
Saving behavior	0.259**	0.132**	0.398**	1
Mean	3.57	3.31	3.66	3.08
SD	0.55	0.57	0.69	0.83

** p<0.01, * p<0.05

<Table 4> Standardized Structural Estimates

Path	Path	Total a (n=511)		HFLG b (n=276)		LFLG c (n=235)	
		Standardized coefficients (t-value)		Standardized coefficients (t-value)		Standardized coefficients (t-value)	
H1	Self-efficacy → Saving intention	0.163 (3.200)**		0.347 (2.940)**		-0.055 (-0.402)	
H2	Self-control → Saving intention	0.160 (2.976)**		0.255 (2.079)*		0.351 (2.186)*	
H3	Saving intention → Saving behavior	0.362 (7.399)**		0.307 (2.777)**		0.363 (3.334)**	
Path	Path	Non restriction model		Restriction model		$\Delta\chi^2$	Δdf
		χ^2	df	χ^2	df		
H4	Self-efficacy → Saving intention	495.164	296	500.836	297	5.672	1
H5	Self-control → Saving intention			495.297	297		

** p<0.01, * p<0.05

^a $\chi^2=471.207(df=148, \chi^2/df=3.184, p\text{-value} =0.000), GFI=0.915, NFI=0.898, CFI=0.928, RMR=0.048, RMSEA=0.065$

^b $\chi^2=256.248(df=148, \chi^2/df=1.792, p\text{-value} =0.000), GFI=0.798, NFI=0.733, CFI=0.858, RMR=0.073, RMSEA=0.091$

^c $\chi^2=229.906(df=148, \chi^2/df=1.553, p\text{-value} =0.000), GFI=0.820, NFI=0.751, CFI=0.891, RMR=0.046, RMSEA=0.074$

HFLG: High financial literacy group

LFLG: Low financial literacy group

5.4. 연구가설의 검증

본 연구에 이용된 자기효능감, 자기통제, 가입의도, 그리고 가입 행동과 같은 연구 단위 간의 전체적 모형을 구조방정식모형(SEM)으로 검증한 결과, 적합도는 $\chi^2=471.207(df=148, \chi^2/df=3.184, p\text{-value} =0.000), GFI=0.915, NFI=0.898, CFI=0.928, RMR=0.048, RMSEA=0.065$ 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 이용된 자기효능감, 자기통제, 가입의도, 그리고 가입 행동과 같은 연구 단위 간의 관계에 대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구조모형을 분석한 결과와, 금융이해력에 따른 차이를 검증하기 위한 분석 결과는 <Table 4>와 같다.

H1은 자기효능감과 가입의도 간의 관계를 알아 보기위한 것이다. 고객의 자기효능감이 높아질수록 가입의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H1을 검증한 결과, 경로계수 값은 0.163, t값은 3.200으로 자기효능감은 가입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따라서 H1은 지지되었다.

H2는 자기통제와 가입의도 간의 관계를 알아 보기위한 것이다. 고객의 자기통제가 높아질수록 가입의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H2를 검증한 결과, 경로계수 값은 0.160, t값은 2.976으로 자기통제는 가입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따라서 H2는 지지되었다.

H3은 가입의도와 가입행동 간의 관계를 알아 보기위한 것이다. 고객의 가입의도가 높아질수록 가입행동이 높아질 것이라는 H3을 검증한 결과, 경로계수 값은 0.362, t값은 7.399로 가입의도는 가입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따라서 H3은 지지되었다.

H4는 자기효능감과 가입의도 간에 금융이해력이 높은 그룹과 낮은 그룹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금융이해력에 따른 차이 검증에 대한 H4를 검증한 결과, $\Delta\chi^2$ 가 5.672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Delta\chi^2>3.84$). 따라서 금융이해력이 높은 그룹이 금융이해력이 낮은 그룹보다 자기효능감이 연금저축 가입의도에 더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이해력이 높은 그룹과 낮은 그룹 각각의 경로 분석 결과를 보면, 금융이해력이 높은 그룹의 경로계수 값은 0.347, t 값은 2.940으로 금융이해력이 높은 그룹의 자기효능감은 가입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p < 0.05$), 금융이해력이 낮은 그룹의 경로계수 값은 -0.055, t 값은 -0.402으로 금융이해력이 낮은 그룹의 자기효능감은 가입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5$).

H5는 자기통제와 가입의도 간에 금융이해력이 높은 그룹과 낮은 그룹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금융이해력에 따른 차이 검증에 대한 H5를 검증한 결과, $\Delta\chi^2$ 가 0.133으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Delta\chi^2 < 3.84$).

금융이해력이 높은 그룹과 낮은 그룹에 대하여 각각의 경로 분석 결과를 보면, 금융이해력이 높은 그룹의 경로계수 값은 0.255, t 값은 2.079로 금융이해력이 높은 그룹의 자기통제는 가입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p < 0.05$), 금융이해력이 낮은 그룹의 경로계수 값은 0.351, t 값은 2.186으로 금융이해력이 낮은 그룹의 자기통제는 가입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5$).

6. 결론

본 연구는 20세에서 60세에 이르는 세대의 일반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로,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자기통제가 연금저축 가입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러한 변수들이 연금저축의 가입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한 것이다. 또한, 금융이해력에 따라 자기효능감 및 자기통제와 연금저축 가입의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연구한 것이다.

가설 검증결과, 자기효능감과 자기통제가 연금저축 가입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금저축 가입의도가 가입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자기통제가 저축의도와 관계가 있다는 Laibson, Repetto, Tobacman, Hall, Gale, & Akerlof(1998)와 Shefrin, & Thaler(2004)의 연구 결과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금융이해력의 차이에 따른 유효성을 검증함으로써, Lusardi, & Mitchell(2007)의 금융이해력에 대한 연구와 차별된다.

이러한 결과에 따른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은행은 일반적으로 연금저축에 대한 안정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저축 가치보다 미래의 회수 가치가 높음을 고객에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인식은 고객의 자기효능감을 증가시킬 수 있다. 또한 은퇴 시기가 빨라지는 사회 현상을 고객에게 인지시켜서 고객이 은퇴 후의 경제활동에 바람직하게 대비할 수 있는 의지를 심어줄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은행은 소비자에게 현재의 수준에 만족하지 않고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금융 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은행은 고객의 금융이해력에 따라 마케팅 활동을 다르게 구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은퇴 이후의 생활이 안정될 수 있을 것이라는 안정감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금융이해력이 낮은 그룹에서 자기통제는 연금저축 가입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만, 자기효능감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 지식이 부족한 고객은 연금저축을 통해 자기통제를 찾을 수 있지만, 금융이해력의 부족으로 적절한 자기효능감은 어려움을 나타낸다. 따라서 금융이해력이 낮은 고객에게는 투자 대비 효과성 측면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효과성 측면은 금리와 소득공제 효과를 강조하여 자기통제를 충족

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금융지식이 낮은 그룹은 안정된 이자수익을 기반으로 하는 안정형과 채권 투자를 수익으로 하는 채권형 등과 같은 안정된 투자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금융이해력이 높은 그룹에서 자기효능감과 자기통제 모두 연금저축 가입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이해력이 높은 고객은 자기효능감 보다는 바람직한 경제활동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금융이해력이 높은 고객은 연금 저축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자사의 연금저축이 타사의 연금저축보다 우수함을 강조해야 한다. 또한 금융이해력이 높은 그룹은 안정된 이자수익보다 투자를 통한 수익 증대를 이해할 수 있으므로 주식형 또는 채권형과 주식형 두 가지를 같이 운용하는 혼합형 연금저축 가입을 권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면, 연금저축은 연령에 따라 받을 수 있게 되는 기간이 다르게 나타난다. 낮은 연령층은 가입 후 오랜 시간 후부터 수령할 수 있으나, 높은 연령층은 비교적 빠르게 수령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연령에 따른 차이검증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자기효능감 및 자기통제와 연금저축 가입에 대한 영향관계를 검증하였고 이러한 영향 관계에서 금융이해력에 따른 차이를 검증한 연구로서 의미가 있다.

References

- Agarwal, S., Driscoll, J. C., Gabaix, X., & Laibson, D. (2007). *The age of reason: Financial decisions over the life cycle*. Seoul, Korea: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 Ainslie, G. (1975). Specious reward: A behavioral theory of impulsiveness and impulse control. *Psychological Bulletin*, 82(4), 463.
- Ajzen, I. (1985). From intentions to actions: A theory of planned behavior. Berlin Heidelberg, Germany: Springer
- Ajzen, I., & Madden, T. J. (1986). Prediction of goal-directed behavior: Attitudes, intentions, and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2(5), 453-474.
- Alba, J. W., & Hutchinson, J. W. (1987). Dimensions of consumer expertise.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3(4), 411-454.
- Assael, H. (1998). *Consumer behavior and marketing action*. Boston: Wadsworth.
- Bagozzi, R. P., & Yi, Y. (1988). On the Evaluation of Structural Equation Models. *Journal of the Academy of Marketing Science*, 16(1), 74-94.
- Baker, T. L., Hunt, J. B., & Scribner, L. L. (2002). The effect of introducing a new brand on consumer perceptions of current brand similarity: The roles of product knowledge and involvement. *Journal of Marketing Theory and Practice*, 10(4), 45-57.
- Bandura, A. (1982). Self-efficacy mechanism in human agency. *American Psychologist*, 37(2), 122.
- Bandura, A. (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A cognitive social theory*. Englewood Cliffs, New York : Prentice Hall.
- Bandura, A. (1996). Failures in self-regulation: Energy depletion or

- selective disengagement?. *Psychological Inquiry*, 7(1), 20-24.
- Bandura, A. (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Macmillan.
- Barr, S., & Gilg, A. W. (2007). A conceptual framework for understanding and analyzing attitudes towards environmental behaviour. *Geografiska Annaler. Series B. Human Geography*, 89(4), 361-379.
- Baumeister, R. F., Bratslavsky, E., Muraven, M., & Tice, D. M. (1998). Ego depletion: is the active self a limited resour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5), 1252.
- Baumeister, R. F., Heatherton, T. F., & Tice, D. M. (1994). *Losing control: How and why people fail at self-regulation*. San Diego, CA: Academic Press.
- Beghetto, R. A. (2006). Creative self-efficacy: Correlates in middle and secondary students. *Creativity Research Journal*, 18(4), 447-457.
- Bell, E., & Lerman, R. I. (2005). *Can financial literacy enhance asset building? (Vol. 6)*. Washington, D.C.: Urban Institute, Labor and Social Policy Center.
- Bernheim, B. D., & Garrett, D. M. (2003). The effects of financial education in the workplace: Evidence from a survey of household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87(7), 1487-1519.
- Bernheim, B. D., Garrett, D. M., & Maki, D. M. (2001). Education and saving: The long-term effects of high school financial curriculum mandate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80(3), 435-465.
- Bernheim, D. D. (1998). *Financial illiteracy, education, and retirement saving*. Philadelphia: Wharton School Pension Research Council, University of Pennsylvania.
- Bettman, J. R., & Park, C. W. (1980). Effects of prior knowledge and experience and phase of the choice process on consumer decision processes: A protocol analysi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7(3), 234-248.
- Blair, M. E., & Innis, D. E. (1996). The effects of product knowledge on the evaluation of warranted brands. *Psychology & Marketing*, 13(5), 445-456.
- Boulding, W., Kalra, A., Staelin, R., & Zelthaml, V. A. (1993). A dynamic process model of service quality: from expectations to behavioral intentions.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30(1), 7-27.
- Calvet, L. E., Campbell, J. Y., & Sodini, P. (2007). Down or Out: Assessing the Welfare Costs of Household Investment Mistake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15, 707-747.
- Carmeli, A., & Schaubroeck, J. (2007). The influence of leaders' and other referents' normative expectations on individual involvement in creative work. *The Leadership Quarterly*, 18(1), 35-48.
- Campbell, J. Y. (2006). Household finance. *The Journal of Finance*, 61(4), 1553-1604.
- Carver, C. S., & Scheier, M. F. (1998). *On the self-regulation of behaviour*.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hen, G., Gully, S. M., & Eden, D. (2001). Validation of a new general self-efficacy scale. *Organizational Research Methods*, 4(1), 62-83.
- Choe, H. C., Joo, S. H., Kim, M. J., & Kim, J. H. (2009). Developing of the retirement readiness indexes of south korea. *Journal of Consumer Studies*, 20(3), 189-214.
- Choi, N. (2004). Sex role group differences in specific, academic, and general self-efficacy. *Journal of Psychology*, 138(2), 149-159.
- Choi, Hyun-Ja (2010). *2010 college financial literacy index (FQ) measurements*. Seoul, Korea: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 Chun, Kyu-Seung (2010). Financial education challenges due to economic conditions substantiality changes. *Korea Economic Forum*, 17(2), 49-70.
- De Ridder, D. T., Lensvelt-Mulders, G., Finkenauer, C., Stok, F. M., & Baumeister, R. F. (2012). Taking stock of self-control: A meta-analysis of how trait self-control relates to a wide range of behavior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16(1), 76-99.
- Dietz, B. E., Carrozza, M., & Ritchey, P. N. (2003). Does financial self-efficacy explain gender differences in retirement saving strategies?. *Journal of Women & Aging*, 15(4), 83-96.
- Engel, J. F., & Blackwell, R. D. (1982). *Consumer Behavior*. New York: Holt.
- Engel, J. F., & Roger, D. (1995). Blackwell (1982), *Consumer Behavior*.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 Fishbach, A., & Labroo, A. A. (2007). Be better or be merry: how mood affects self-contro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3(2), 158.
- Frederick, S., Loewenstein, G., & O'donoghue, T. (2002). Time discounting and time preference: A critical review.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40(2), 351-401.
- Gist, M. E. (1987). Self-efficacy: Implications f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resource management.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2(3), 472-485.
- Gist, M. E., & Mitchell, T. R. (1992). Self-efficacy: A theoretical analysis of its determinants and malleability.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7(2), 183-211.
- Gollwitzer, P. M. (1999). Implementation intentions: strong effects of simple plans. *American Psychologist*, 54(7), 493.
- Gong, Y., Huang, J. C., & Farh, J. L. (2009). Employee learning orientation, transformational leadership, and employee creativity: The mediating role of employee creative self-efficacy.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52(4), 765-778.
- Gottfredson, M. R., & Hirschi, T. (1990). *A general theory of crime*.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Hellier, P. K., Geursen, G. M., Carr, R. A., & Rickard, J. A. (2003). Customer repurchase intention: A general structural equation model. *European Journal of Marketing*, 37(11/12), 1762-1800.
- Hilgert, M. A., Hogarth, J. M., & Beverly, S. G. (2003). Household financial management: The connection between knowledge and behavior. *Fed. Res. Bull.* 89. 309.
- Hofmann, W., Gschwendner, T., Friese, M., Wiers, R. W., & Schmitt, M. (2008). Working memory capacity and self-regulatory behavior: toward an individual differences perspective on behavior determination by automatic versus controlled process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5(4), 962.
- Hogarth, J. M., Beverly, S. G., & Hilgert, M. (2003). *Patterns of*

- financial behaviors: Implications for community educators and policy makers. In Federal Reserve Bank of Chicago Proceedings.
- Hong, Sok-Chul, & Jun, Han-Kyung. (2013). Population aging and deepening income inequality in Korea. *Journal of Korean Economic Analysis*, 19(1), 72-114.
- Hsu, M. H., Ju, T. L., Yen, C. H., & Chang, C. M. (2007). Knowledge sharing behavior in virtual communities: The relationship between trust, self-efficacy, and outcome expecta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Computer Studies*, 65(2), 153-169.
- Igbaria, M., & Iivari, J. (1995). The effects of self-efficacy on computer usage. *Omega*, 23(6), 587-605.
- Jaussi, K. S., Randel, A. E., & Dionne, S. D. (2007). I am, I think I can, and I do: The role of personal identity, self-efficacy, and cross-application of experiences in creativity at work. *Creativity Research Journal*, 19(2-3), 247-258.
- Kimball, M., & Shumway, T. (2006). *Investor sophistication, and the participation, home bias, diversification, and employer stock puzzles*. Mimeo: University of Michigan.
- Kim, Eun-Jung, & Moon, Chung-Sook (2010). A study on the developing financial literacy in middle school. *Consumer Policy and Education Review*, 6(1), 67-77.
- Kim, Jae-Ho (2013).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purchasing and preserving the private pension -The effect of firm's subsidy for contribution on employee's private pension-. *Journal of Insurance Studies*, 73(1), 3-29.
- Kim, Jung-Hyun, & Choe, Hyun-Cha (2012). The Financial Competency of Korean Consumers. *Journal of Consumer Studies*, 23(1), 229-254.
- Kim, Sung-Sook (2009). Purchasing patterns of national pension, retirement pension and private pension of the unretired fifties for the income security in the old age. *Korean Journal of Social Science*, 28(1), 27-50.
- Kuhl, J., & Fuhrmann, A. (1998). *Decomposing self-regulation and self-control*. The Volitional Components Inventory.
- Kwak, Kee-Young, & Ji, So-Young (2008). Examining the moderating effect of involvement in the internet purchase decision process. *Asia Pacific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 18(2), 15-40.
- Laibson, D. I., Repetto, A., Tobacman, J., Hall, R. E., Gale, W. G., & Akerlof, G. A. (1998). *Self-control and saving for retirement*.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 Laroche, M., Bergeron, J., & Goutaland, C. (2003). How intangibility affects perceived risk: The moderating role of knowledge and involvement. *Journal of Services Marketing*, 17(2), 122-140.
- Logue, A. W. (1988). Research on self-control: An integrating framework. *Behavioral and Brain Sciences*, 11(04), 665-679.
- Lusardi, A., & Mitchell, O. S. (2007). Baby boomer retirement security: The roles of planning, financial literacy, and housing wealth.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54(1), 205-224.
- Lusardi, A., & Mitchell, O. S. (2007). *Financial literacy and retirement planning: New evidence from the rand american life panel*. Michigan Retirement Research Center Research Paper.
- Marks, L. J., & Olson, J. C. (1981). Toward a cognitive structure conceptualization of product familiarity.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8(1), 145-150.
- Mischel, W. (1974). *Processes in delay of gratification*. New York, NY: Academic Press.
- Mischel, W., Cantor, N., & Feldman, S. (1996). *Principles of self-regulation: The nature of willpower and self-control*. New York, NY: Guilford Press.
- Muraven, M. (2008). Autonomous self-control is less depleting.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2(3), 763-770.
- Muraven, M., & Baumeister, R. F. (2000). Self-regulation and depletion of limited resources: Does self-control resemble a muscle?. *Psychological Bulletin*, 126(2), 247-259.
- Rachlin, H. (2000). *Reframing health behavior change with behavioral economics*. The lonely addict.
- Rothbart, M. K., Ellis, L. K., Rosario Rueda, M., & Posner, M. I. (2003). Developing mechanisms of temperamental effortful control. *Journal of Personality*, 71(6), 1113-1144.
- Schmeichel, B. J. (2007). Attention control, memory updating, and emotion regulation temporarily reduce the capacity for executive control.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General*, 136(2), 241.
- Shefrin, H. M., & Thaler, R. H. (2004). *Mental accounting, saving, and self-control*. *Advances in behavioral economics*. Advances in Behavioral Economics.
- Shin, S. J., & Zhou, J. (2007). When is educational specialization heterogeneity related to creativity in research and development teams? Transformational leadership as a moderator.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92(6), 1709.
- Snihotta, F. F., Scholz, U., & Schwarzer, R. (2005). Bridging the intention-behaviour gap: Planning, self-efficacy, and action control in the adoption and maintenance of physical exercise. *Psychology & Health*, 20(2), 143-160.
- Stango, V., & Zinman, J. (2007). Fuzzy Math and household finance: Theory and evidence. *Review of Financial Studies*, 24(2), 506-534.
- Statistics Korea (2013). *Elderly statistics 2013*. Daejeon, Korea: Statistics Korea
- Tangney, J. P., Baumeister, R. F., & Boone, A. L. (2004). High self-control predicts good adjustment, less pathology, better grades, and interpersonal success. *Journal of Personality*, 72(2), 271-324.
- Tice, D. M., Baumeister, R. F., Shmueli, D., & Muraven, M. (2007). Restoring the self: Positive affect helps improve self-regulation following ego depletion.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3(3), 379-384.
- Tierney, P., & Farmer, S. M. (2002). Creative self-efficacy: Its potential antecedents and relationship to creative performance.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45(6), 1137-1148.
- Tierney, P., & Farmer, S. M. (2004). The Pygmalion process and employee creativity. *Journal of Management*, 30(3), 413-432.
- Yoon, Sung-Wook, & Cheon, Jeong-Bin (2012). The impacts of sender's expertise on negative word-of-mouth effect: Focused on the moderating effects of receiver's product knowledge and extroversion, introversion. *Journal of Marketing Management Research*, 17(2), 49-70.